



orthodoxkorea.org



영성의 샘터

하느님의 은총

'신앙과 삶의 본질을 찾아서' 중에서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세상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 변함이 없는 신앙

크리스토퍼 무어 신부



세 아이의 아버지며, 많은 학생과 어린이가 있는 성당의 신부로서 저는 교회의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 또한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 있기에 일생을 두고 지켜나가야 할 신앙과 하느님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랑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데에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살던 미국의 통계를 보면, 젊은이들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면 교회나 신앙도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변함이 없는 신앙을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 저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며, 이는 단지 성직자나 부모님,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각 성당의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교회의 한 청년 프로그램 전문가는 젊은 사람이 일생동안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주요 요소가 세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첫째, 부모님이 가정에서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둘째, 가정 밖에서 적어도 한 명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또한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성인 ‘멘토’(경험 없는 사람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조언과 도움을 베풀어주는 유경험자, 선배, 스승)나 친구가 있는 것.

셋째, 하느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적어도 한 번의 중요한 영적 경험을 하는 것.

본질적으로 한 아이가 1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의미 있고 건강한 관계를 경험한다면, 곧 경건한 부모, 신뢰할 수 있는 멘토, 인격적인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그 아이는 잘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우리에게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가정과 아이들의 구원, 그리고 한국에서 활력이 넘치는 정교회의 앞날을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요소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하느님은 동사이시다!

아타나시아 봉사자



우 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명사는 놀랍다. 곧, ‘주님, 구원자, 구세주, 빛 중의 빛, 왕 중의 왕’ 등등.

또한 우리 신앙의 형용사는 자극하고 격려하며 영감을 불어넣어 준다. 곧, ‘고귀한, 신성한, 거룩한, 성스러운, 영원한’ 등등

명사와 형용사는 멋진 단어이다. 이런 용어로써 우리는 어떤 대상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하지만 명사는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한다. 그저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을 따름이다. 단지 명사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문장을 완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동사가 필요하다. 동사는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게 한다.

그리스도교는 그저 명사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동사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느낀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천하기에 최고인 동사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도 다른 그리스도교적 동사로는 이룰테면, ‘섬기다, 주다, 나누다, 치유하다, 용서하다’ 등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사는 ‘따르다’이다. 곧, “나를 따라오라”이다.(마태오 9,9)

시리아인 이삭 성인(7세기)은 동사를 써서 아래와 같이 충고하였다.

"박해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박해를 받으라. 남을 호되게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비판을 받는 사람이 되라.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우하기보다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라.

압제자가 되기보다는 압제당하는 사람이 되라.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라."



죽일 축하합니다.

지난 1월 7일은 요한 박인곤 보제님의 죽일이었습니다. 오는 1월 17일은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님,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님의 죽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영적 자녀들을 오래도록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1월 17일 (월)
성 안토니오스 대수도자
 - * 1월 18일 (화)
성 아타나시오스, 성 키릴로스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 * 1월 21일 (금)
성 막시모스 그리스인 수도자
성 아그니 순교자
- 오전 9시 : 죽일 조과,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소 식

대교구

■ 대교구 의회 공고

2022년 1월 23일(주일) 오후 2시부터 제18회 대교구 의회를 개최하오니 각 성당 의회 구성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열리며, 참가를 위한 줌 링크는 차후에 알려드립니다.

■ 신자 총회 공고

오늘 성찬예배에 이어서 2022년 정기 신자 총회가 서울, 인천, 춘천 성당에서 열립니다.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례 신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가르침

성 코즈마 사제순교자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 만약 백 가지 죄 중에서 아흔아홉 개는 고백하고 하나를 남긴다면, 고백한 아흔아홉 개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지음을 부끄러워하라.
- 고백할 때에는 남에게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나빠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라.
- 사제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고 돌아설 때는 죽을지언정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 이런 고백이면 구원될 것이고, 아니면 몇천 가지를 잘한다 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표지 사진 설명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 기념 성당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 기념 성당이 있다. 성당은 성 엘레니 모후에 의해 주님께서 탄생하신 동굴 위에 세워졌는데 339년 완공되었지만 화재로 소실되었고, 531년에 유스티니아노스 황제가 다시 세웠다. 성당 출입구(사진 중앙 하단, 멀리 보이는 곳)는 '겸손의 문'으로 불리는데 높이가 120cm에 불과하여 누구나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여야 한다. 성당은 길이 52m, 넓이 24m 크기의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하나의 성당이 아니라 성당 두 채가 이어져 있다.